

# MUJINE

*Heritage*

07

JULY 2015

ART OF SKELETON

**VACANCE SPECIAL**

여름 소리, 여름 풍경

\_\_ 신성록의 어떤 선언

MOISTURIZE ME



LONGINES

# Mexican Invasion

프리다 칼로, 가브리엘 쿠리,  
아브라함 크루스비에가스. 국내 내로라하는  
화랑과 미술관 세 곳이 주목한 이들이다.  
우연만은 아닌 이 스포트라이트의 교집합에  
등장한 멕시코 예술의 오늘을 짚어본다.

— EDITOR 양민정 —

지난 90년대 이래 현대미술은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와 같은 세계의 변방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세기 유럽의 식민지로서, 20세기 중후반에 독립과 함께 후기 근대사회로 나아가면서 여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딜레마를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리고 개발과 급격한 성장에 따라 파생되는 흥미로운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어김없이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멕시코 예술의 어제와 오늘 역시 그런 다양한 이슈로 채워져 있다. 이를테면 이념이나 종교, 경제, 폭력, 부패, 기근, 질병, 교육, 그리고 혁명 등. 아트선재센터의 배현아 큐레이터는 아시아의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멕시코가 만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뒤로하고 스페인 식민지를 거쳐 근대화된 멕시코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자본의 횡포, 권력의 남용, 부정부패, 불평등과 같은 급성장의 몸살을 앓으며 21세기를 맞이했다. 20세기가 이룩한 세계화와 정보화 이후, 세계는 다문화와 소수민족에 귀를 기울이며 세계 변방으로 눈을 돌리는 듯하지만 평화와 평등을 가장한 이면에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검은 논리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멕시코는, 그 중심에 있는 무수한 변방 중 하나인 것이다. 국제갤러리 전민경 디렉터 역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과도기를 겪은 멕시코의 본격적인 동시대 미술이 대두되면서 오늘날의 멕시코 예술의 입지가 변화했다고 본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남미 출신 작가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남미계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등도 미술 현장에서 주요한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중적으로 국내 수면에 떠오른 것은 근래이지만 멕시코 예술은 지난 5~10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관심을 받아왔고, 아트마켓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최정화, 이불과 같은 작가들이 회화 중심적이던 미술시장을 뒤로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세대로 평가되는 가운데, 멕시코에서도 설치와 조각,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스타일의 작업을 주로 하는 움직임이 형성됐다. 사진 작업으로 멕시코 동시대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페르난도 오르테가, 감각적이고 함축된 오브제나 풍자적 연출을 통한 미디어 작업을 선보이는 미구엘 칼데론 역시 멕시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활약 중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트선재센터와 국제갤러리, 소마미술관은 각각 아브라함 크루스비에가스, 가브리엘 쿠리, 그리고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선보이며 멕시코 예술의 어제와 오늘, 그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계기를 마련했다.

자료 제공 아트선재센터(www.artsonje.org)



가브리엘 쿠리  
개인전

6/4~7/5 국제갤러리



<Privacy Standards>, 2015

국제갤러리는 가브리엘 쿠리(1970~)의 국내 첫 개인전을 연다. 조각의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사회를 향한 비평적인 시각을 구축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로 국제적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작품은 강철, 돌과 같은 전통적 조각 작품 외에도,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크루스비에가스의 작품과도 공통점을 지니는 부분이다. 쿠리는 특히 일상적이지만 사회적인 역할을 함의하고 있는 오브제에 포커스를 맞춘다. 지폐라든지, 여행 중 발견한 일용품, 일상 속의 공산품 등을 차용해 그러한 삶의 소비재들이 상징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대리석과 한국 지폐로 설치된 작품, 하얀 종이컵들을 대리석에 박아놓은 작품 등은 재료의 부조화와 풍자적 유머를 함께 드러낸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의 작품들은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설치와 조각 작업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의미를 엿보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국제갤러리 전민경 디렉터는 “작가의 관점을 상징하는 선택된 재료의 용도와, 그것의 사회적인 의미를 반추해본다면 더욱 입체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Looping trajectory through collapsing mountain 01-01>, 2015

<Probability Chart K1>, 2015

